

광주정신 계승·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만들기 초점

바른미래·민주평화당 지방선거 광주·전남 공약 뭐가 있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광주·전남지역 6·13 지방선거 공약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 이슈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친환경자동차 주행 인프라 조성
23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아 출마 선언을 한 전덕영 전남대학교수의 공약에 지역의 미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전 후보는 공약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4차산업 선도 도시 육성, 친환경 자동차 주행 시내 인프라 건설, 청년벤처타운 조성, 한국형 스모그 프리 타워 건설, 민간아파트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장려 등을 내놓았다. 특히 운영현 현 광주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무등산~광주전~영산강 생태 벨트 구축, 제3순환도로 조기완공, 광주~나주 광역철도 조기 건설, 광주정신 세계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전 후보는 "광주와 전남이 상생으로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된다"며 "상호 양보와 배려 정신으로 지혜를 모아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

친환경자동차 주행 인프라 조성

골목상권 전기료 20% 감면 추진

한전공대 연구 중심대학으로 설립

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하는 행복 미래'를 슬로건으로 최근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의 전체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 성장 가로 막는 규제 혁파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분량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맞춤형 금융 서비스·법률 지원 컨설팅 컨설팅으로 자영업자 재기 등이다.

◇민주평화당, '광주 정신 강조'="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평화당은 '광주 정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조사를 보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세계화에도 앞장서겠다는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평화당은 ▲민중·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일자리 창출 사업 ▲복지급여 중앙정부 부담 ▲청년이 광주의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 등 7대 정책 공약을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9주기 권양숙 여사(가운데)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세우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팀 참가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또 광주·전남의 중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 문제도 중요 이슈로 거론하고 있다. 평화당은 한전공대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설립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래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인공지능 중심의 창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평화당의 중요 지역 공약이다. 광주 첨단 3지구 연구교육단지 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유치하고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평화당의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에너지밸리를 조성해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지역을 집중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지구 내에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조성해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인재의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는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종배 시장 후보 사퇴...“광주 정신 훼손 우려”

평화당 지도부 만류 불구 불출마

민주 무안군수 김산 후보로 교체

민주평화당 김종배 광주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여당이 무안군수 후보를 전략공천을 통해 교체하는 등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일부 지방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5·18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역사 속에 우뚝 세워보고 싶은 소망으로 불출마를 결심했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느꼈습니다. 기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김 전 의원의 후보 사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정치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세를 뛰어넘기가 어려워,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에 일방적인 지지여론이 형성될 경우 자칫 5·18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 천정배 의원 등이 삼고초려해 김 전 의원을 광주시

장 후보로 영입하는데 성공했으나 본인은 광주 현지의 정치흐름에 큰 비중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선거 막판에 광주정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며 수차례 만류했으나 김 전 의원은 숙고 끝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이 불출마함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재, 민중당 윤민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또 민주당은 무안군수 후보로 김산 전 무안군의 회 의장을 전략공천했다. 김 전 의장은 목포 문태고와 목포대를 졸업하고 승달장학회 이사, 운남청년회장, 5·6대 무안군의회를 지냈다. 민주당은 애초 경선에서 1위를 한 정영덕 전 전남도의회를 공천했으나, 정 전 의원의 부적절한 여성관계 의혹이 제기 되자 최근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에 탈락한 최진 예비후보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30년 정든 민주당을 잠시 떠나 22만 남구민들의 이름으로 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상규명 그날까지...“오월광주”는 여전히 진행형



(226) 38년



하성훈 작 '1980년 5월21일 발표'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 오월은 전시장과 5·18기념음악회, 금남로 거리와 망월동 등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느라 분주했다. 38년이 흘러 한 세대를 훌쩍 넘었지만 오늘도 오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광주의 서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80년 오월 현장을 지나왔던 광주의 작가들에게도 오월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 같다. 80년대부터 민중미술운동에 몸담고 민중들의 삶과 세상의 흐름,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아왔던 하성훈작가(1962년~)에게도 오월 광주는 언제나 시대의 절정이자, 끝나지 않은 질문이다.

작품 '1980년 5월21일 발표'는 작가가 지난해 작업했던 광주항쟁도이다. 지난해에 와서야 금남로 전일 빌딩 총탄 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헬기 사격이 밝혀진 것은 근자의 일이지만 작가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계엄군의 집단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전일 빌딩 앞에서 공수부대와 시민, 학생이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을 조선시대 전통회화 기법의 하나인 부감법(俯瞰法)을 사용해 당

시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보듯 실감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무등산과 금남로 건물들, 옛 전남도청의 모습이 실감나고 곳곳에서 격전을 치렀을 것으로 보이는 자욱한 검은 연기와 인물들의 행렬은 지금 보아도 비장하다.

"언젠가는 광주항쟁도를 전통 수묵화 기법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는 이를 위해 80년 광주항쟁 열흘간의 투쟁 일지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과 각종 보고서와 자료 등을 참고하여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다. 일찍이 "튼튼한 소묘력과 전통 형식의 재인식으로 수묵작업을 일구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있는 작가는 1990년 전남대 사범대 1호관에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를 그렸고, 그동안 사라졌던 벽화를 지난해 복원하는 데에도 참여하는 등 최근에는 수묵역사화를 비롯해 소재원 48영 등 전통회화의 감명을 작품에 담아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